

JTS 길벗 거리모금

명동에서 외치다 “엄마가 되어 주세요”



오른쪽부터 길벗 대표회원인 한지민, 최다니엘, 서효림, 윤소이가 거리모금행사를 마치고 소감을 나누고 있다. 길벗은 행사를 마친 후 나눔의 시간을 통해 모금의 참의미를 되새기며 회향을 한다. 수행의 일환인 이 시간은 모금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회원들에게 자리잡고 있다(위). 국제구호단체 JTS와 정토회 산하 길벗 회원들은 5월 2일 명동 거리에서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아시아 아이들에게 분유 10만 통 보내기 거리모금'을 실시했다.

“굶주리는 지구촌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작은 정성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아이가 일주일간 분유를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조인 투게더(Join Together)”라고 쓰인 주황색, 검정색 티셔츠에 모금함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자~” “오빠~”하는 군중의 함성이 쏟아졌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며 정체를 파악에 나섰다. 정체를 파악을 마친 행인들도 소리를 질렀다.

“어! 한지민이다. 최다니엘이다! 배중욱이다!”
바쁜 연예인들이 명동에서 당당하게 ‘엄마가 되어주세요’라고 외치며 모금하는 이유는 뭘까?

이날은 방송연예 종사자 수행공동체 ‘길벗’이 국제구호단체 JTS(Join Together Society, 이사장 법륜) 모금 봉사활동을 통한 마음공부를 하는 날이었다. 모금활동은 사람들에게 보시의 기회를 주고, 기회를 제공하는 이들도 함께 복 짓는 수행이다. 한마디로 현대식 ‘탁발’이다.

올해 들어 가장 따뜻했던 5월 2일, 젊음의 거리 명동은 나눔의 기쁨으로 열기를 더했다. 환호성으로 들쭉날쭉한 명동은 ‘내 것’을 사러 온 이들로 가득한 쇼핑의 거리라야 할, 내 것을 주려고 모인 나눔의 장이었다.

평소 커피값 지불에는 잘 열리면서 모금함으로는 잘 열리지 않았던 사람들 지갑에서도 돈이 술술 나온다. 모금을 하러 나온 연예인과 모금에 동참한 시민들의 얼굴에는 행복의 미소가 번졌다. 서로는 길벗이 돼있었다.

‘길벗’ 거리모금행사는 무작정 거리로 뛰어들어

인기 절정을 누리고 있는 배우 최다니엘이 명동에서 거리 모금을 실시했다. 최다니엘의 모금함에는 그의 인기 만큼 많은 보시금이 들어왔다.

드는 것이 아니다. 모금 1시간 전부터 철저한 사전교육을 진행한다. 거리모금 요령, 모금 구호, 유경험자와 미경험자끼리 팀 만들기, ‘모금 명심문’을 마음에 새긴다. 모금 활동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고 공손하게 실천하는 참 수행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길벗 회원들은 모금행사 시작에 앞서 “우리는 바다, 산, 자연으로부터 세상에 빚져 왔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임을 알았다. 모두가 우리의 아이들이다. 내가 잘 쓰여지는 사람이 되면, 내 마음을 조금만 나누면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며 모금의 의미를 일깨웠다.

늘 대중 앞에서 당당할 것만 같은 연예인도, 경력이 많은 회원들이라고 해도 현장에서는 처음부터 쉬이 입을 열지 않는다. 사람들의 외면에 위축될 때는 비장의 무기인 명심문을 읽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 모금함에 후원의 손길이 건네지면 자신감이 생겨 본격적인 모금을 시작한다. 이제는 외면을 당해도 당당히 ‘감사합니다. 가시다보면 또 모금함이 있을 겁니다’라며 방긋 웃는 여유까지 보이기도 했다.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고, 상대의 마

음을 열게 한 자만이 알 수 있는 여유였다.

수행공동체 ‘길벗’은 정토회 산하 방송·연극·영화·문화예술인들이 사회봉사활동을 하며 마음공부를 하는 모임이다. 회원들은 매년 5·12월 거리모금 활동, 정기법회 및 마음 수련 등을 진행한다.

JTS는 올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아시아 아이들에게 분유 10만 통을 보내는 것이 목표다. 모금 행사와 곳곳의 후원으로 모아진 돈은 제3세계 어린이들에게 분유, 필수 의약품, 이유식 등으로 보내진다.

이날 참가한 회원들은 노회경 작가를 필두로 배우 한지민, 배중욱, 김여진, 윤소이, 최다니엘, 전에서, 서효림, 방중현, 아나운서 한석준 등 50여 명이 동참했다.

노회경 작가는 최근 연극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의 저작권과 출판 인세를 JTS에 모두 기부했다. 8년이라는 세월동안 그녀는 주변 동료들을 수행의 현장으로 초대해 ‘자비, 보시’의 기회를 주고 있다.

모금활동을 누구보다 좋아하기로 소문난 한지민은 관세음보살의 현현이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안가지고 와서 아무것도 안가지고 간다. 뭔가를 위해 가지려고만 할 때 고통이 시작된다. 마음을 내려놓고 이런 기회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서로 교감을 나누면 행복해진다”며 동참을 권했다.

모금행사를 마치고 돌아온 회원들은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단순한 모금활동이 아니라 봉사활동으로 서로가 교감하고,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었다. 요즘 최고주가를 올리고 있는 최다니엘은 모금 내내 들었던 고민을 털어놓았다.

“모금함에 돈을 넣어주시는 분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제가 듣고 있으니 주는 것인지 고민이 있었어요. 결국은 좋은데 쓰이는 것이니 좋겠지만 주시는 분들이 저희가 하는 활동의 의미를 알고 주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 마음이 쓰였어요.”

최다니엘의 솔직한 소감에 5년 동안 활동을 해온 한지민은 이렇게 위안을 준다. “저도 첫 모금을 할 때는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연예인이라는 직업으로 내가 어디에 쓰일 수 있을지를 생각하세요.

우리가 거리에 동참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주시고, 저희 일에도 관심을 갖게 되죠. 결국은 그들에게도 좋은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말하면서 그들은 또 한 번 나눔의 기쁨을 만끽했다. 모금 행사를 마치고 나서 사람들은 얼굴에 생명이 감돌았다. 시작할 때는 보이지 않던 미소와 편안함까지도.

육신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 남이 보시하는 것을 거둬주고, 남이 보시하는 것을 기뻐해 주면 된다. 길벗이 거리에서 보여주고 확인한 것은 이러한 보시였다. 따뜻한 마음, 작은 정성을 나누는 이들에게 부처님오신날은 성큼 다가와 있었다.

이상민 기자 un82@buddhapia.com

KBS드라마 ‘수상한 삼형제’에서 열연했던 방중현은 모금에 동참한 시민들과 악수를 하거나, 사진을 찍어주는 등의 서비스로 사랑을 받았다.

매년 두 번 거리모금 하는 예술인 수행공동체

아시아 어린이들에게 분유 10만 통 전달 목표



우리가 거리에 동참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주시고, 저희 일에도 관심을 갖게 되죠. 결국은 그들에게도 좋은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梵鐘名家 聖鐘社

범종을 진정한 예술로 승화시킨 21세기 최고의 걸작품 탄생

세계 최고의 성종사 주조기술에 개채(改彩) 분야 최고의 권위자인 청원선님의 기술이 더해져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스타일의 명품 범종이 탄생되었습니다.

본 제품은 개채 및 개금을 통해 범종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개채와 같은 표면처리로 인해 종소리가 둔탁해지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신제품으로, 한국 범종의 수준을 한차원 업그레이드시킨 금세기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www.sungjonga.co.kr 이 사람아!

나는 품을 위해서
한쪽 눈을 바쳤어
눈을 닫아야 천 년의 소리가 나오는 거지
천 년을 부르면 굵어야 끝

고객을 위한 원칙과 고집
한국의 명장
당신의 마음을 배울 것입니다!

아름다운 개채 범종
금고 (금박+은박)
범종 (못칠+개금)
해인사종 (금박+은박)

대표: 범선 원광식
(종묘원장, 한국·대한민국 명장)

● 전시장: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02-733-6141 ● 공장: 충북 진천군 덕사동 함곡리 406-28 Tel:043-536-2581